

# 국어사전의 성격과 활용 문제

김동연\*

## 1. 서론

사전이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을 말하니, 국어사전이란 국어에서 사용되는 말들을 가려서 그에 대해 자세히 풀이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어생활에서 필요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전을 잘 활용할 줄 모른다. 아마도 가정에 쓸 만한 국어사전을 비치하여 필요할 때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사전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찾는 일은 웬지 손에 익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국어 단어에 대해서 모두 잘 알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국어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반면에, 국어사전을 찾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엔 지나치게 사전의 정의에 사로잡혀 국어를 스스로 편협하게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다. 즉, 어떤 단어가 사전에 뜻풀이가 되어 있을 때, 그곳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의미로는 쓰일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 성장하며 사멸한다는 기본적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일반인, 특히 성서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국어사전의 활용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어사전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국어사전의 종류와 편찬의 역사를 개관한 다음, 국어사전의 언어적 정보 특징을 사전 집필 원고 모습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구체적 실례를 통하여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

\* 강남대학교, 국어학.

## 2. 국어사전의 종류와 편찬

### 2.1. 국어사전과 특수사전

국어사전은 국어 단어에 대하여 언어학적 정보를 풀이해 놓은 책이다. 언어학적 정보란 특정한 단어에 대한 발음, 어원, 문법범주, 뜻풀이와 예문, 관련어 등을 말하게 되는데, 국어사전에 정의된 이러한 정보는 흔히 표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국어생활에서 표준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을 이용하는 독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단어의 언어학적 정보를 찾아보면 그만이지만, 편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전 이용자가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사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어 단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사전을 편찬하게 된다.

사전 편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어떤 어휘들을 채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국어에는 약 50만이 넘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단어에서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수록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수록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수록되는 어휘의 종류에 따라 고어사전<sup>1)</sup>, 유의어사전<sup>2)</sup>, 반의어사전<sup>3)</sup>, 비속어사전<sup>4)</sup>, 방언사전<sup>5)</sup>, 형용사사전<sup>6)</sup>, 동사사전<sup>7)</sup> 등 특수사전의 형태를 띠게 된다. 특수사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용도를 가진 어원사전, 외래어사전, 속담사전, 관용어사전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선정된 단어를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배열하는 방

- 1)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남광우(1999). 『고어사전』. 교학사.  
박재현(2001). 『고어사전』. 이회
- 2) 김광해(2000).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 날말.  
허동진 외(1987). 『조선말동의어사전』. 연변인민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0). 『조선 동의어 사전』
- 3) 전수태(1990). 『반의어사전』. 한신문화사.  
김광해(1990). 『반대말 사전』. 국학자료원.
- 4) 장태진(1998). 『국어변말사전』. 한국문화사.  
김동언(1999). 『국어비속어사전』. 프리미엄북스
- 5) 이기갑 외(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 6) 김병선 외(1992). 『형용사 사전』.
- 7) 홍재성 외(1977).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법에는 ‘천문, 지리, 인륜’ 등 의미에 따른 전통적 배열방법이 있는가 하면, 수록된 표제어의 자모순에 따른 배열방법이 있다. 전자는 분류사전<sup>8)</sup>이라 불리며, 오늘날에는 방언 사전 등에서 이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후자는 일반적인 국어사전들이 취하는 자모순 국어사전을 뜻하지만, 단어의 끝에서부터 역으로 자모순을 적용하는 역순사전<sup>9)</sup>의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이라 부르는 것은 국어의 모든 단어를 정순(正順)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언어학적 풀이를 가한 것이다. 국어사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편찬된 특수사전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국어사전이 단어에 대한 언어학적 요소를 온전하게 풀이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특수사전은 국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고 필요한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제, 항을 달리하여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편찬 역사를 간략히 더듬어 보자.

## 2.2. 국어사전 편찬의 흐름

엄밀한 의미에서 국어사전 편찬은 20세기 전반에 들어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한자에 대한 대역 학습서들이 간행되었고, 실학 시대에 편찬된 어휘집들도 대부분은 한자어의 이해를 위한 주석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개화기 들어 한자어가 아닌 국어의 어휘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들도 주로 서양선교사들이 포교의 목적으로 한 대역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이전 시대의 어휘집과 비슷하다<sup>10)</sup>.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평가되는 『말모이』는 1911년부터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끝내 햇빛을 보지 못한 채로 그 일부만이 고본(稿本)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전은 고유어와 외래어에 전문어도 수록한 순수 국어사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sup>11)</sup>. 출판된 최초의 국어사전은 문세영의 『조선어사

8) 남영신(1987).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남영신(1988). 『우리말 분류사전』(풀이말편). 한강문화사.

박용수(1988). 『우리말 갈래사전』. 서울대출판부.

9)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사전』. 정음사.

10) 이병근(1986)은 실학시대까지를 사전 편찬의 준비기, 19세기 후반을 태동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태동기가 준비기와 다른 점으로 『국한회어』(1895) 같이 사전의 표제어를 현대의 국어사전과 같이 배열한 사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태동기에 외국인에 의해 편찬된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불증언』(1880), 『한영증언』(1880), 『노한사전』(1874), 『나한사전』(1891), 『영한사전』(1891), 『한영증언』(1897), 『법한증언』(1901).

11) 『말모이』 고본은 『한국문화』(서울대, 1986b) 7집에 실려 있으며, 또한 이병

전(1938)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조선어사전』(1938)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를 대본으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언어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후 이윤재·김병제가 편찬한 『표준조선말사전』(1947)이 출판되어 해방 직후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러한 초기 국어사전 편찬의 흐름이 하나로 종합 정리되는 것은 조선어학회(현재의 한글학회)가 간행한 『조선말큰사전』이다. 『조선말큰사전』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편찬회가 조선어학회로 통합되면서 근 20년의 세월이 흘러 1947년 첫째 권이 출판될 수 있었다. 『조선말큰사전』은 경제사정으로 한꺼번에 출판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발행되었는데, 6권 전부를 간행한 것은 1957년의 일이며, 이 때에 편찬자는 한글학회로, 사전의 이름은 『큰사전』으로 바뀌었다<sup>13)</sup>.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하나의 획을 그은 『조선말큰사전』 이래로 많은 국어사전이 출판되었다.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모두 사전편찬의 방식은 『조선말큰사전』을 모태로 하여 수정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발간된 중요한 국어사전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국어사전

국어대사전(이회승) <sup>14)</sup>	1961	약23만 단어
새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1974	약31만 단어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0	약40만 단어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1	약38만 단어
조선말대사전(북한 사회과학원)	1992	약33만 단어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	1998	약5만 단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약51만 단어

### 3. 국어사전의 언어적 정보

근(2000)에도 전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병근(1977), 김민수(1983)를 참조할 것.

12)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사전』(1920)이 출판된 최초의 국어사전이겠으나, 이것은 총독부가 주관한 것으로 국어 표제어에 대하여 일문으로 주석을 하여 한일 대역어의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어사전이라고 하기 어렵다.

13) 『조선말큰사전』의 편찬경과는 해당 사전의 앞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사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김윤경(1957), 유창돈(195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 증보판이 1982년에 간행되었는데, 약 42만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를 배열하는 거시적인 틀이 완성되고 나면, 각 표제어에 대하여 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언어학적 정보는 대부분 국어학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편찬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음에,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의 집필지침에 따라 완성된 ‘잡동사니’에 대한 원고의 모습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을 보자<sup>15)</sup>.

(2) ‘잡동사니’에 대한 집필 예<sup>16)</sup>

#! I-009106

#1 잡동사니

#2 雜---

#3 %

#4 『명』 『1』 잡다한 여러 가지가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 물건. ㄴ= 트럭 주위에는 방  
세간에서부터 부엌 살림 도구에 이르기까지 『잡동사니』 가재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NCKAB022,273>> / 이야기의 머리만 떼어 주면 여자는 장안의  
『잡동사니를』 다 벨아 놓을 판이다. <<NIBAC000,276>> ㄴ\$

『2』 (비유적) 그렇듯 하게 반듯하지 못하고 자잘한 일. 또는 사람. ㄴ= 야소교도 남이 왼  
뺨을 치면은 오른 뺨도 내밀어라, 했는지 않소. 그러니 『잡동사니』 아니고서는 칼  
들고 싸우기 어렵지요.<<NALAA060,134>> / 기타 『잡동사니』 직업이 아닌 대학  
교수에 있어서는, 후자의 유형보다 전자의 유형을 취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EIIAC000,068>> ㄴ\$

#5 %

#6 %

(2)에서 ‘#!’은 단어가 적힌 카드 번호를, ‘#1’은 표제어를, ‘#2’는 원어를, ‘#3’은 활용정보를, ‘#4’는 문법범주, 전문어 영역 표시, 뜻풀이 및 용례를, ‘#5’는 관련어휘를, ‘#6’은 참고어휘를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에 ‘%’로 표시된 것은 해당하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에 ‘%’로 표시된 것은 ‘잡동사니’는 명사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 ‘#4’에서 『명』은 ‘잡동사니’가 명사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1』 등

15)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지침 내용이나 정보들이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연구분석』(2002)에 자세히 나와 있다.

16) 『표준국어대사전』은 여러 전문가가 분담 집필했기 때문에, 이 원고에는 발음이나 어원설명에 대한 설명항목이 없다. 이들은 따로 집필되어 최종 순간에 합쳐져 편찬되었다. 최종적으로 사전에 실린 ‘잡동사니’에 대한 풀이는 다음과 같다.

잡동사니 (雜---) [-똥--] ㉠ ①.. ②....

의 숫자는 해당 표제어의 의미 가짓수를 의미한다. ‘≡’ 다음에는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 >>’ 속에는 용례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용례가 끝날 때는 ‘\$’로 표시해 주고 있다. 각 정보 제공 항목이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사전 집필자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뜻풀이가 관련된 항목 ‘#4’라고 할 수 있다.

예 (2)에서 보인 ‘잡동사니’는 수백 개의 용례를 자료로 하여 두 가지의 뜻을 분석하여 풀이한 것이다. 이 분석 과정에서 기존 사전의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하게 되고, 새로 수집된 용례에서 파악된 의미를 첨가하여 뜻풀이를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풀이된 뜻이 얼마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전 집필자가 여러 명인 대사전 편찬의 경우에는 집필자에게 통일된 편찬 지침과 함께 해당 단어들의 쓰임을 보여주는 용례가 함께 제공된다. 예전의 국어사전 집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작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집필자의 개인 언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뜻풀이나 쓰임이 국어의 총체적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대규모 언어자료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국어의 총체적 모습을 체계적으로 사전에서 풀이할 수 있게 되었다.

## 4. 국어사전의 활용

### 4.1. 규범성과 기술성

국어사전은 편찬 목적에 따라 규범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어사전이 바른 국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편찬된 교육적 규범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최근에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대표적인 예이다<sup>17)</sup>. 후자는 국어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편찬된 학술적 기술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최근 편찬된 『연세한국어사전』(1998)이 대표적

17)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분에서 어문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었다. 1986년에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개정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 머리말).

인 예가 될 것이다<sup>18)</sup>.

국어사전의 경우는 얼마간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기 마련이다<sup>19)</sup>. 사전에는 해당 언어사회에서 사회화된 공통적인 언어정보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언어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준화시킨 지식으로 편찬되기 때문이다(이병근, 2000, 9). 더욱이, 바른 국어생활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인 한글맞춤법이나 표준발음법, 그리고 표준어사정원칙 등의 어문규정이 국어사전 편찬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표제어의 선정이나 그 표기, 표제어의 발음표시 등이 이들 규정에 따른다면 규범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20)</sup>.

사전의 규범적 성격이 극단적으로 노출된 것은 북한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간행된 사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언어정책에 따라 편찬된 핵심사전의 하나인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과 사전편찬 이론서인 정순기·리기원(1984)에서는 사전편찬 기본원칙 가운데 ‘과학성과 규범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 통일적으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사전을 편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의 뜻풀이는 규범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단어의 뜻은 고정적이지 않고 매우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매우 자의적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화된 공통적이고 모범적인 의미를 제시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뜻풀이에 있어서 국어사전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법률가의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국어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기록하는 역사가의 입장이라는 것이 사전 편찬자의 정확한 성격 규정이 될 것이다.

#### 4.2. 표제어 문제

우리는 어떤 생소한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된다.

18) 1986년 1월에 연세대학교 교수 몇 사람이 새 사전의 편찬은 일반 출판사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일이며, 그 일은 한국어 연구와 한글 문화운동의 큰 요람인 .....(『연세한국어사전』, 머리말)

19) 김민수(1986, 39-40)은 사전편찬의 태도에는 초기의 실용적 규범성에서 역사적 기술성으로 바뀌고 거기에 규범성을 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에는 어느 정도의 규범성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 그러나, 실제 사전에서는 이들간에도 서로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정재도(2001) 참조.

이 때 국어사전에 그 단어가 들어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필요로 하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는 난감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예로 하여 국어사전의 활용에서 만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필자는 오래 전에, 조부에게서 ‘책술’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성씨에 관련된 책을 하나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곤 ‘책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전후 대화로 보아 대충 책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 단어는 처음 듣는 것이어서 바로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었다. 책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었다.

(3) 책술 [-술] 『명』 책의 두껍고 얇은 정도.(표준)

사전을 통해 ‘책술’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책의 두께’라든지 ‘책의 페이지 수’라든지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사전을 이용하는 보람이요, 사전 이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문제가 금방 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찾고자 하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전을 찾는 방법이 서툴러서 생기기도 하겠지만<sup>21)</sup>, 대부분은 사전의 표제어가 충분하지 못해서 생기게 된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 지역의 방언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그마리가 선 것을 보니 남동생을 보겠구나’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집에 돌아와 국어사전에서 ‘그마리’를 찾아보았으나, 대사전에서도 그에 대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마리’와 비슷한 표제어의 앞뒤를 뒤적거리던 중 ‘거머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거머리’는 두 개의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동물의 하나이고, 다른 것은 문제의 ‘그마리’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4) 거머리<sup>1</sup> [거:-] ㉮ 어린아이의 두 눈썹 사이로 살 속에 파랗게 비쳐 보이는 심줄. 자란 뒤에는 없어진다. (표준)

21) 사전 찾는 방법과 관련하여, 대개는 자모순 배열을 하는 사전에서 자모의 순서를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한글의 자모는 겹자음이나 겹모음이 많은데, 이들의 순서를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국어사전은 사전마다 자모 순서를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한글맞춤법(1989)에서 자모배열순서를 결정한 이후 해결된 바 있지만, 북한의 사전과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제어 배열문제에 대해서는 김민수(1986)참조.



거머리<sup>2</sup> [거:~] ㉠(동)거머릿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착 달라붙는 상태가 매우 끈덕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악착같이 착취하는 상태가 매우 끈덕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거머리’이 ‘그마리’의 표준어이기 때문에 ‘거머리’만 표제어로 수록된 것이다. 이 경우 ‘그마리’도 표제어로 올려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방언을 표제어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하는 단어가 표제어에 없을 때는 그 단어와 형태를 유사하게 바뀌가면서 사전의 앞뒤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찾고자 하는 어형이 반듯하게 표준어형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찾고자 하는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형이 바뀐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막다른 데에 이르러 어찌 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의미하는 단어는 원래 ‘이판새판’이었던 듯하다. ‘이판새판’은 ‘지금 이 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할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뜻의 단어를 ‘이판사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국어대사전』(1991)에는 ‘이판사판’은 없고, ‘이판새판’만 올려져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1988)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이판새판’은 없고, 모두 ‘이판사판’만 표제어로 올려져 있다.

- (5)이판새판 ㉠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판. (금성)
- 이판사판 ㉠ 막다른 데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 (연세)
- 이판사판 ㉠ 막다른 데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 (표준)

『연세한국어사전』은 1960년대 이후의 언어자료에서 쓰인 단어만을 표제어로 선정한 편찬방침 때문에 ‘이판사판’만을 표제어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판사판’을 표준으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어대사전』(1991)은 예전에 쓰이던 단어를 반성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결과, 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판사판’을 표제어로 올리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국어대사전』(1991)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판새판’만을 볼 수 있으며, 『연세한국어사전』이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판사판’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이판사판’이 ‘이판새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선가 밝혀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괴발개발’에 대한 표제어는 사전 이용자에게 편리한 점이 있다. ‘괴발개발’은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데, ‘괴’가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기 쉽지 않고, 발음하기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쇠발, 개발새발’ 등으로 발음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는 전통적인 ‘괴발개발’만을 표제어로 올리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6)괴발개발 [괴:발개발] ㉠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글씨를 마구 써 놓은 모양을 나타냄. (연세)  
 괴:발개발 [괴-/개] ㉡ 글씨를 함부로 갈겨써 놓은 모양. (금성)  
 괴발-개발 [괴:--/개:--] ㉢ 고양이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표준)  
 개발-쇠발 ㉣ ‘괴발개발’의 잘못. (표준)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개발쇠발’을 표제어로 올린 다음 ‘괴발개발’의 잘못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 대하여 규범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규범적 사전을 지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에서 바람직한 처리라고 하겠으나, 여전히 ‘개발새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럴 경우, ‘개발새발’이 표준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사전의 표제어가 국어의 모든 단어를 남김없이 담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 4.3. 뜻풀이 문제

국어사전의 미시적 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뜻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족할 만하게 풀이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으로서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사전 표제어의 표기, 발음표시 등은 어문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개의 사전에서 일치하지만, 단어의 뜻 분석에 의한 뜻풀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편찬에서 핵심적 사항 중에 하나인 뜻풀이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 사전 편찬자의 태도에 따라 뜻풀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전의 뜻풀이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한사전과 북한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한 사전은 대체로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 언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경향이라면, 북한 사전은 혁명의 힘있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언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혁명에 힘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 뜻에다가 필요에 의한 새로운 뜻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치 경제 등의 용어에서는 물론 일반적인 어휘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 단어의 풀이를 보자<sup>22)</sup>.

(7) ‘일꾼’의 뜻풀이

남한 ①삿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②어떤 일이든지 잘 처리하는 사람. ③중대한 일을 맡아 하거나 할 만한 사람. ④(방)머슴  
북한 ①<<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일정한 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통털어 이르는 말. ②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

단어 ‘일꾼’에 대한 풀이에서 남북의 차이가 확연하다. 북한사전의 ①번 뜻은 북한의 체제와 관련되어 새로 첨가된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미가 변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의미를 개조하여 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언어정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뜻풀이에서 남북의 차이는 언어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 의해 뜻풀이도 확연히 달라진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정치 사상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게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국어사전간에 뜻풀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김동언,1995).

(8) 고유어 ‘만만하다’의 뜻풀이

- ㄱ. 만만하다 『活』 ① 御し易し. ② 軟かなり.(총독부,1920)  
만만-하다 『여변』(-하여·-환) 『形』 ① 제어하기 쉽다. ② 우습게 다룰 수 있다. ③ 두려울 것이 없다. ④ 단단하지 않다. 무르다.(문세영,1938)  
만만-하다 <-하여, -하니> 『언』 두려울 것 없다. 우습게 보다. (조선말,1947)
- ㄴ. 만만-하다 『어.여벗』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볼 데 없다. ③ 우습게 보이다. (큰사전,1957)  
만만-하다 『형』 (여변)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우습게 보이다. 마음대로 대할 수 있어 보이다. (민중,1961)  
만만-하다<sup>1</sup> 『형』 (여변)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조심스럽거나 어렵지 않아 마음놓고 다룰만 하다. ③ 힘들지 않고 아주 손쉽게 다룰만 하다. (삼성,1974)  
만만-하다 『형』 (여불) ① 무르고 보드랍다. ② 손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금

22) 남북사전간의 뜻풀이 차이를 보이는 예는 고영근 외(1989)에 자세하다.

성,1990)

만만-하다<sup>1</sup> 『그』(여벗)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거리낄 것이 없어 쉽게 다룰 만하다.

③ 힘들지 않고 손쉽다. (한글,1991)

만만하다 [만만한, 만만하여(해), 만만합니다] 『형』 손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연세,1998)

만만-하다<sup>1</sup> 『형』 ①연하고 보드랍다. ②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표준,1999)

ㄷ.만만:하다<sup>1</sup> 『형』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룰 만 하다. D (부정하는 단어와 결합하여) 호락호락하다. ③ 힘들지 않고 손쉽다. (선말,1962)

만만하다<sup>1</sup> 『형』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다루기 쉽게 호락호락하다. (현대,1981)

만만하다<sup>1</sup> 『형』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다루기 쉽게 호락호락하다. (선대,1992)

(8ㄱ)은 해방 이전에 발행된 사전을, (8ㄴ)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발행된 사전을, (8ㄷ)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의 뜻을 보여준다.

예 (8)를 통해, 『조선어사전』(1938)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후자의 두 가지 뜻을 그대로 계승하고 두 가지 뜻을 새로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첨가된 두 가지 뜻은 『표준조선말사전』(1947)과 같은 점이 이채롭다. 이것은 『표준조선말사전』이 1947년 김병제에 의해 간행되긴 했지만, 이 사전의 뼈대를 완성한 이운재가 『조선어사전』(1938)의 체계와 교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운재는 사전 편찬의 일을 1933년 겨울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김병제의 ‘머리말을 대신하여’), 『조선어사전』(1938) 편찬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해방 후에 간행된 대사전에서는 『조선말큰사전』(1947-1957)이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뜻의 가짓수나 표현에서 각각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특히 ‘연하고 보드랍다’는 뜻은 이후 사전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 있다. 이후 남한에서 간행된 대사전은 기본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두 유형으로 갈라볼 수 있다. 금성, 민중, 표준의 대사전이 그 하나요, 한글과 삼성의 큰사전이 다른 하나다. 이들은 서로 뜻의 가짓수에서만 아니라 개별 뜻이 포용하는 범위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전자는 복합화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분석화의 관점을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나,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기존의 뜻 분석에 개의치 않고 실제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하나의 뜻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말사전』(1962)도 기본적으로 『조선말큰사전』(1947-1957)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은 ‘연하고 보드랍다’가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에서 간행된 사전은 서로간에 영향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sup>23)</sup>.

이러한 사실은 사전의 뜻풀이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는 단순히 현재 우리가 쓰는 단어의 뜻만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뜻을 버리기 어려워 그대로 사전에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쓰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자료의 충실도나 분석의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마다 뜻풀이가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전의 이용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4. 성경 번역의 문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번역이란 원천언어를 수용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일지 모른다. 재해석하는 정도나 방법에 따라 의역 혹은 직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직역이란 불가능할지 모른다<sup>24)</sup>.

번역에서 원천언어에 대응하는 수용언어를 찾기 어려운 점이 문제지만, 번역자가 수용언어의 구조와 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는 개화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국인들을 조역자로 삼았던 일을 들 수 있다. 외국 선교사들은 원천언어에는 정통했을지 모르나, 수용언어인 한국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에 대해 정통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인이라도 한국어를 모르거나 애매하게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한 실례를 다음의 예 (9)를<sup>25)</sup>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23) 뜻풀이에 의한 차이 이외에도 뜻의 차등화, 표현방법 등에서도 사전마다 큰 차이가 발견된다. 자세한 것은 김동언(1995)을 참조할 수 있다.

24) 번역에 대해서는 민영진(1996)을 참조할 수 있다.

25) 이 자료들은 대한성서공회의 전무용 선생이 제공한 것이다. 전 선생은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번역에서 국어사전 문제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이 부분의 집필은 대부분 그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특별히 감사의 뜻을 밝힌다.

예들은 『성경전서개역개정판』(1998)에서 인용함. 격은뭉음표 안에 있는 부분이 개정되기 이전의 본문이고, 밑줄 부분이 개정된 본문이다.

- (9)ㄱ.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20)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그가 보내신 <자를>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아니함이라 (요 5:38)
- ㄴ. 주께서 <가라사대>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사람을 찾으라 (행 9:11)  
 <저희가>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사람이라 (행 10:22).
- ㄷ.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이의 형상을 <좃아>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일은 자니라(골 3:10)  
 <저희가>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자를 <심판하기를>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이에게 <직고하리라>사실대로 고하리라(벧전 4:5)

예 (9)는 『개역한글판』(1956)에 쓰인 의존명사 ‘자’가 『개역개정판』(1998)에서 ‘이, 사람’으로 개정되거나 그대로 쓰인 예들이다. 『개역한글판』의 신약에 쓰인 의존명사 ‘자’는 모두 1591회인데, 이중 52회만 ‘사람’ 또는 의존명사 ‘이’로 개정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였다. (9ㄱ)은 ‘이’로 개정된 것을, (9ㄴ)은 ‘사람’으로 개정된 것을 보이며, (9ㄷ)은 ‘자’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인다.

대체로 ‘이’로 개정된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높이고 싶은 경우에 해당하나, ‘사람’으로 개정한 경우는 ‘자’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sup>26)</sup>. 『개

26) ‘자’가 다음과 같이 9번 정도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주께서 <가라사대>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사람을 찾으라 (사행 9:11)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사람을 결박할 <권세를>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행 9:14)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사람이 아니요 <육 있는 자요>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신령한 사람이니라 (고전 15:46)  
 이같은 <자들과>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사람에게 <복종하라>순종하라 (고전 16:16)  
 <저희가>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사람들을 알아 주라 (고전 16:18)  
 <그 불법을>불법이 <사하심을>사함을 받고 <그 죄를>죄가  
 <가리우심을>가리어짐을 받는 <자는>사람들은 복이 있고(롬 4:7)  
 <저희가>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사람이라 (행 10:22)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역한글판에서 ‘자’로 쓰였던 말이 『개역개정판』에서 서로 다르게 개정된 사실은 의존명사 ‘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국어사전에서 ‘자’에 대한 뜻풀이를 보자.

(10)자<sup>10</sup>(者) 『ㅣ』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낮게 일컫는 말. “놈”보다는 조금 품이 있음.(한글학회, 중사전, 1958)

자<sup>14</sup>(者) 『형명』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얹잡아 일컫는 말.(국어대사전, 이희승, 1982)

이들 사전에서는 의존명사 ‘자’를 ‘사람’을 ‘얹잡거나 낮게’ 이르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 풀이는 성경을 개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높이고 싶은 대상에게 낮잡아 이르는 말인 ‘자’를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일 대상에게는 의존명사 ‘이’를, 낮게 말하기 어려운 상대에게는 ‘사람’을 쓰거나 ‘자’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의 근거에는 국어사전의 풀이를 인정하고도 싶고, 벗어나고도 싶은 사정을 있었음을 반영한다. 전자는 높이고 싶은 특정한 대상에게는 ‘자’를 쓰지 않았다는 결정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얹잡거나 낮게’ 일컫는 의미가 없는 대부분의 ‘자’가 『개역개정판』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사전이 언어현실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실제 국어생활에서 의존명사 ‘자’는 사람을 ‘얹잡거나 낮게’ 일컫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를 때도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은 최근에 출판된 국어사전들의 뜻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자를>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사람이라 (행 11:24)

27) 의존명사 ‘자’가 일상적이고 중립적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은 다음의 언어현실도 증명한다.

① 접미사 ‘-자(者)’가 결합된 파생어가 낮잡는 의미가 없다.

학자, 교육자, 과학자, 운전자, 보행자, 장애인

② 법률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에 보통 ‘자’를 쓰지만, 낮추는 의미가 없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

- (11)자<sup>17</sup> 『이』(때이) 사람을 좀 얹잡아 가리켜 일컫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이란 뜻. (H) 그 ~. 저 ~. (한글, 우리말큰사전, 1991)
- 자 『명』(의존) 어떤 사람을 조금 얹잡거나 범상하게 지칭하는 말. (금성대사전, 1991)
- 자<sup>5</sup> 『의』 ①(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또는 그) 사람. /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는다. (유) 이. ②(사람을 조금 얹잡아 부를 때 쓰는 말로) 사람, 놈. / 환퇴라는 자는 얼마나 못됐던지 공자님이 앉았던 자리라면 그 나무라도 찍어버리고 욕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던 나쁜 사람이었다.(연세한국어, 1998)
- 자<sup>18</sup> (者) 『명』『의』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거나 일상적으로 이를 때 쓴다. / 낮선 자가 대문 앞에서 서성인다. (표준, 1999)

1991년에 출판된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까지도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로만 풀이하고 있지만, 『국어대사전』(1991)부터는 의존명사 ‘자’의 의미에 ‘얹잡는’ 것과 ‘일상적인’ 것이 모두 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연세한국어사전은 ①번 뜻으로 ‘사람’만 제시한 다음에 유의어로 의존명사 ‘이’를 제시하지만, ②번 뜻에는 ‘사람, 놈’을 제시하면서 의존명사 ‘이’와 관련을 맺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 풀이는 의존명사 ‘자’에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의 사전 풀이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sup>28)</sup>. 『개역개정판』에서 대부분 그냥 쓰이고 있는 ‘자’는 때에 따라 낮잡거나 일상적으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립적으로 또는 적어도 낮잡지 않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개역개정판』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높이고 싶은 대상에는 의존명사 ‘이’로 개정함으로써, 사전의 풀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의 어디에도 의존 명사 ‘이’에 높이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정한 대상에게만 ‘이’를 붙임으로써 그렇지 않은 것(사람, 혹은 자)과 차별화

28) 반대로, 예전의 사전에서는 그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최근의 사전은 현재의 바뀐 언어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선호하던 예전 시대에 한자어인 ‘자(者)’가 낮잡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는 ‘이’나 ‘놈’ 등이 쓰이기 어색한 문맥에서 널리 쓰이다가 점차 마땅치 않은 상대에게도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사전의 뜻풀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5. 결론

이 글은 일반인, 특히 성서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국어사전의 활용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어사전이란 일반적으로 국어 단어에 대하여 언어적 정보를 망라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단어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국어사전을 가까이 두고 이용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또, 국어사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사전의 정의에 사로잡혀 국어를 스스로 편협하게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활용상의 문제는 국어사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사전은 국어 단어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주는 언어사전 이외에도 다양한 표제어만을 선별하여 뜻풀이를 제공하는 여러 특수사전이 있다. 이러한 사전은 국어의 특정한 항목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요긴하다. 본격적인 언어 사전으로서의 국어사전도 그 편찬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은 『조선말큰사전』(1947-1957)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전은 이를 바탕으로 깊고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전산처리의 도움으로 언어자료에 대한 대규모 수집 및 정리가 가능해지면서 출판된 몇 사전들은 뜻풀이나 용례 제시 등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해졌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각각의 표제어에 대하여 표기, 발음표시, 원어표시, 활용 및 문법 정보, 뜻풀이 및 용례, 관련단어 제시 등 해당 단어에 대한 모든 언어적 정보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의 정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 원고의 모습을 보였다. 각 필드마다 필요한 정보가 담겨서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단어 정보가 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제시된 언어적 정보는 해당 언어사회에서 사회화된 공통적인 언어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범적인 것을 제시하게 마련이

다.

국어사전에는 언중들이 ‘맞음과 틀림’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편찬된 규범 사전이 있고, 가치 판단 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기술 사전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사전이 되었든, 하나의 사전은 미완성인 것이다. 미완성이란 말은 표제어의 수에서뿐만 아니라, 표제어의 언어적 정보도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편찬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전 편찬작업이 가지는 속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쉼 없이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사멸한다. 언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뜻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뜻이 없어지기도 한다. 형태가 바뀌고 발음이 바뀌는 것은 물론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들을 제 때 사전에 반영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전은 언제나 언어 현실보다 한 걸음 뒤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전은 언어 현실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제공되는 언어 지식은 어느 정도 사회화 된 표준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 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분석』.
- 김동언(1993). 국어사전의 올림말과 동음어. 『국어를 위한 언어학』. 태학사.
- 김동언(1994). 남북 국어사전의 뜻풀이 비교 연구. 『어문논집』(고려대) 33.
- 김동언(1995). 뜻풀이로 본 국어사전 편찬사. 『한국어학』 2.
- 김민수(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단국대) 13.
- 김민수(1986). 국어사전:그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문제. 『국어생활』 7.
- 김윤경(1957). 국어학상으로 본 <<큰사전>>. 『한글』 122.
- 남기심(1987). 국어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방식에 대하여. 『성곡논총』 18.
- 민영진(1996).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두란노.
- 박정출(1948). 표준조선말사전을 보고. 『한글』 13-2.
- 박금자(1989). 북한의 국어사전 평설. 『북한의 말과 글』(고영근 편) 을유문화사.
- 신영철(1938). 문세영 선생 지은 조선어사전. 『한글』 6-10.

- 신익성(1971). 사전편찬을 위한 세 가지 문제. 『한글』 148.
- 심재기(1987). 국어사전에서의 뜻풀이. 『어학연구』 23-1
- 심재기(1989). 좋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 고찰. 『애산학보』 7.
- 유창돈(1958). 우리말 <<큰사전>> 해부. 『사상계』 6-1,2.
-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고본). 언어. 2-1.
- 이병근(1982). 국어사전사 편고. 『백영 정병욱 선생 화갑기년논총』.
- 이병근(1986a).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 이병근(1986b). 조선광문회편 <<말모이>> (사전).해제 및 정리. 『한국문화』 7
- 이병근(1990). 북한의 사전편찬과 사전학.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 이병근(1990). 사전 및 사전학.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병근(2000). 한국어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은정(1987). 사전에서의 품사규정고찰. 『한글』 195.
- 이용호(1975). 외국인의 국어사전 편찬사업. 『명지어문학』 9.
- 이현복(1987). 국어사전에서의 발음표시. 『어학연구』 23-1.
- 임홍빈(1993). 북한 사전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3권4호.
- 전무용(1993).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 2월호.
- 정순기,리기원(1984). 사전편찬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정재도(2001). 국어사전 바로잡기. 한글학회.
- 조재수(1984). 국어사전 편찬론. 과학사.
-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한글학회.
- 지준모(1969). 사전론. 『어문학』 20.
- 차재은(1991). 북한의 사전편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김민수 편) 2. 녹진.
- 한재영(1991). 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 『문학과 사회』 18.
- 홍운표(1986). 최초의 국어사전 『국한회어』에 대하여. 『국어학논총』(천시권화기론).
- 홍재성(1987). 한국어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국어생활』 7.
- 홍재성(1991). 일반사전학특강. 『언어학회』 여름연구회 특강.
- 菅野裕臣(1991). 외국인 편찬 한국어 대역 사전의 현황과 문제점. 『새국어생활』 2-4.

<Abstract>

## The Character and Practical Use of the Korean Dictionary

Dong-Un Kim  
(Kangnam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 the non-specialist the practical use of the Korean dictionary. If we don't know a Korean word, it is appropriate to look it up in a Korean dictionary. But this can turn out to be of little use. In the case that someone habitually turns to the dictionary, s/he is likely to mis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what are often exclusively Korean words, thus becoming enslaved to misleading dictionary definitions. Because such problems originate i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Korean dictionary, we have attempted to describe the particular character of that type of book.

A Korean dictionary is a text that provides concise information about spelling, pronunciation, etymology, grammar, meaning, examples and related words of Korean lexical entries. This information is standard to some degree, because the linguist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Korean dictionary is based on the socialized, common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community.

Language is created, grows and becomes extinct, endlessly. A word takes on a new meaning and usage, or the existing meaning and usage of a word is lost in the process of language growth. Also, new words are created, and forms and pronunciations of words are changed. It is very difficult for a dictionary to reflect these changes at the proper time. A lexicographers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reflect these changes, one step behind the realities of the language. Therefore, the information in a dictionary is not itself the language reality.